

東大新聞

1998년(음력 2542년) 3월 2일(월요일) 제 1241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김기영 / 편집국장 이인성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 신촌동 3가 26(02)260-3491 ~ 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0561)770-2057

크지않은
금방
글

무릇 할 일은 반드시 미리 생각하여 일을 바를 놓치지 말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뒤엎 할 일이 때를 놓치지 않게 된다.

법규경·이선종 261절

오카자키 미노루씨 26일 총장실서 감사패 수여

본교는 지난 2월 26일 총장실에서 일본 Merme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오카자키 미노루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카자키 미노루씨는 본교 건축토목공학부 조봉연 교수와의 인연으로 산정가 9천 1백만원에 상당하는 정밀여과장치를 기증함으로써, 건축토목공학부의 발전과 한·일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능인회,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2천만원 기탁

부산지역 불교신협체인 능인회(회장=김무위)는 지난 2월 26일 정병조 부총장 초청강연법회에서 본교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능인회는 평소 노인 요양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 후원사업에 관심을 보여 오던 중 본교가 경기도 일산에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며 기탁한 것이다.

본교 금모으기운동 동참 총 3천 2백 18g 접수

나라사랑의 일환으로 실시된 금모으기 운동에 본교도 동참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졸업식이 치러진 지난 16일 서울방송과 국민은행의 공동 협찬으로 본관 앞에서 행사를 벌인 결과 총 66건, 2천 1백 78g의 금이 접수되었다. 또한, 경주캠퍼스는 농협 협찬으로 지난 20일 원곡관 앞에서 37건, 1천 40g을 접수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오복늬 이사장은 금 5돈을 국가에 헌납했으며, 이광우(경향행정학) 행정대학원장, 김동경·우순이 동창회 부회장은 각각 금 1돈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신입생 등록률 99.8% 재학생 2차등록 7일까지

경리과(과장=박환호)는 '98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수납을 지난 달 26일 최종 마감한 결과 서울캠퍼스 99.7%, 경주캠퍼스 99.9%로 양 캠퍼스 99.8%의 등록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재학생 1차 등록기간은 지난 달 28일까지였으며, 2차 등록기간은 오늘(2일)부터 7일까지이다.

이와 관련해 경리과 한 관계자는 "2차 등록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등록수납기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불교종합병원 건립 확정

경기도 일산에 한·양방 1천병상 14층 규모 총공사비 1천2백억 ... 효율적 재원마련 시급

본교 최대 중점사업인 불교종합병원 건립이 지난 23일 고양시의 건축허가를 얻어 드디어 가시화됐다.

불교종합병원의 부지로 선정된 경기도 일산이 군부대와 인접해 있어 군사기밀을 이유로 그동안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병원 중수제한 등의 조건을 극복하고 허가가 인준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산동에 건립되는 이 불교종합병원은 8천8백55평의 부지에 한·양방 1천 병상이 마련되고 지하 2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지어진다. 실질적인 착공은 기공식 예정인 5월 '부처님 오신날'에 맞추어 실시될 예정이며 2천2년에서 2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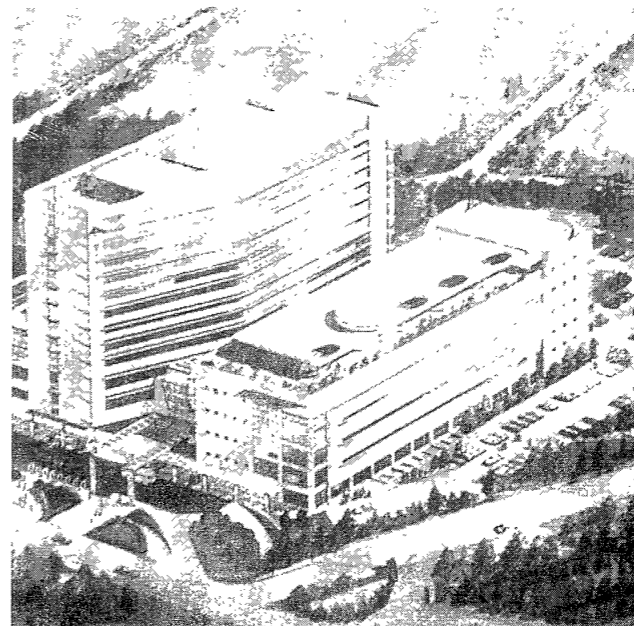
3년 사이에 완공할 계획이다.

불교종합병원 건립목적은 "2006년 개교1백주년을 앞두고 의료사업을 통해 선각자들의 위대한 뜻을 새롭게 이어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모든 불교도의 염원인 한방·양방의 협진체제의 병원을 짓는다"고 학교 당국은 밝혔다.

불교 종합병원은 △불교의 자비정신실현 △불교인의 심신 안식처 제공 △한의과·외과대학 발전 촉진 및 위상제고 △한·양방 협진을 통한 의료체계 확립, 그림의성과 효과를 두고 있으며 한·양방 협진을 통한 특성화로 노인병, 성인병 치료에 있어서는 높은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운영방향은 세계화,

정보화, 인건화를 목표로 삼고 각각 △우수 의료진 및 의료설비 확보 △특성진료분야 육성 △한·양방 협진을 통한 독자적 의료체계 확보 △국제적 전문기구 △불교정신에 기초한 의료복지 구현 △병원양식 심미성 고려 등을 사업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이번 불교종합병원 건립에는 총 공사비 1천2백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학교당국은 "8백50여원은 수익사업이나 발전기금으로, 나머지 5백50여원은 동문과 불교종도들에게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송석구 총장은 "동문이나 불자들의 기금기탁수에 따라 향후 건립될 불교종합병원 이용에



사진은 불교종합병원의 조감도

차별성을 두고, 가령 얼마이상을 기탁하면 평생 무료진료 등의 혜택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석구 총장은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 한의과·외과의 임상교

육의 질적향상과 불교의 복지정신을 구현하는 숙원사업이라고 수도권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의의를 역설하고 "기금조성에 있어 동문, 불교종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

총 5천3백62명 입학 ... 서울캠 2일·경주캠 3일

'98학년도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입학식이 각각 오늘(2일) 오전 11시 만해광장, 3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치러진다.

서울캠의 입학식 행사는 △개식 △삼귀의례 △국민의례 △송석구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인 수석입학생 송진원(경향행정)군의 신입생 선서 △송석구 총장 식사 △오복늬 이사장 치사 △황명수 총동창회장 축사 △장학증서 수여 △교무부위원장 및 부속기관장 소개 △교과제장 △사홍서원 △폐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총동창회, 지난 16일 동우장학금 전달 서울·경주캠 20명에게 1백만원씩

총동창회(회장=황명수·정치53동) 산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는 지난 16일 낮 12시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황명수 총동창회장, 송석구 총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20명(서울캠 12명, 경주캠 8명)에게 2천만원(1인당 1백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수 동우장학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동국의 후배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재학생들이 더욱 노력해서 이 나라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우장학회는 매학기 재학

생 2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2천만원, 교무장학금으로 5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조문기(경제3), 양경아(컴공3), 김형진(인문3), 서효영(국민윤리4), 최영근(법3), 박선경(사과제2), 전해운(식자3), 나수경(정보산업학부2), 조준희(연극3), 이동영(수4), 김민주(지교2), 이상호(정보관리3) △경주캠-정석은(불교3), 강보영(의3), 주선희(관경3), 박광호(국사4), 이해원(정신정보3), 박선현(국제관계4), 김순식(경제4), 김경옥(현의3) 이상 20명

행한다. 경주캠의 입학식 주요행사일정은 △삼귀의례 △입학허가 선언 △경주캠 수석 입학자인 석명진(한외어)군의 신입생 선서 △송석구 총장의 축사 △오복늬 이사장의 치사 △황명수 총동창회장의 축사 △차장 소개 △교과제장 등의 순이다.

올해 신입생 정원은 서울캠이 3천78명으로 작년 입학정원인 3천15명에 비해 63명이 늘어난 인원으로 경주캠은 2천2백92명으로 총 5천3백71명이다. 하지만 서울

교수회, IMF장학금 지급 5명에게 1백만원씩

IMF시대를 맞이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하여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는 IMF특별 장학금'을 1인당 1백만원씩 총 5명에게 지급한다.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써 다른 장학금이나 대여금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학부생 5명이며, 오는 12월 15일 5시까지 교수회관 지하 1층 교수회(260-3576)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미과제 증명서, 과제 증명서 중 1통 △자기소개서 (IMF 특별장학금 지원동기) 1통 △성적증명서 1통 △지도교수 추천서 1통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결과 발표는 오는 19일에 개별통보 된다.

유학생, 동국에서 다시 시작

올해 첫 선발 ... IMF따른 조기귀국 대책 일환

해외유학생 90%이상 지원

IMF 한파 속에서 과중한 학비 부담 등으로 해외유학생들의 조기귀국이 잇따르는 가운데, 본교에서는 '98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기 귀국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입시전형은 예년과는 달리 해외 유학생에 대한 한시적 지원지원을 두었다. 신입 지원자격은 2년이상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마치고 98년 2월 28일 이전에 귀국(예정)한 학생이며, 2학년 편입학의 경우에는 외국의 4년제 정규대학에서 1년이상 재

학한 자로서 97년 9월부터 98년 2월말 이전에 귀국(예정)한 학생에 한한다.

한편 지난 25일 접수를 마감한 전형 결과 1학년 69명 모집에 1백 9명이, 2학년 72명 모집에 25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자중 해외 유학생은 9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서울캠퍼스의 입학과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입학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본교가 외화유출을 막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랑봉사단 봉사활동 극찬" 현행 1학점에서 2학점까지 인정키로

참사랑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진행된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기간의 봉사대상기관이었던 참여연대, 연화복지학원의 관계자들은 "봉사에 임한 학생들이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활동을 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참사랑봉사단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봉사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참사랑봉사단은 교양선택 1학점을 1회에 한해 인정해 주는 현재 봉사활동 지원제도로는 봉사활동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 '98학년도 불학기부터는 계절별로 나누어 2회까지 교양선택 학점을 인정해 총 2학점까지 인정해 주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운영 할 예정이다.

보리수

무한 가능성의 도량

이 봉 춘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인간은 끝없는 갈래에 비유되기도 한다. 바람결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존재, 그가 곧 인간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한없는 공덕이 가득 갈무리된 존재(無量功德藏)'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부질없는 인간의 교만이거나 도취된 환상일지도 모른다. 이 몸뚱이 하나 재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한 조각 욕망에서마저 자유롭지 못한 터에, 인간이 무슨 공덕을 그리도 두루 갖춘 존재라는 말인가. 그러나 적어도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는 진실이다.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거나 어떤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당위가 아니라 존재이다. 인간이므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인간은 본래 그러하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실증해보면 분이 바로 붓다이다. 붓다는 인간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낙엽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 분은 인간이 부처를 이룰 수 있을만큼 공덕을 두루 갖춘 무한 가능성의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모든 인간을 향한 붓다의 격려이자 의평의 메시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무한 가능성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해야함은 물론 남을 격려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곳 삼보의 언덕 진리의 도량에 처음 들어서서 새 젊은이들에게라면 이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 새 젊은이들은 이제 인간의 무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우리의 도량에서 그것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작지만 결코 가벼이해서는 안 될 것 네가지를 말씀하신 바 있다. 왕자, 독사, 불씨, 수행자가 그것이다. 왕자가 자라면 천하를 다스리는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다. 독사는 작아도 한 번 물러만 생명을 해칠 수 있고, 작은 불씨가 은마음을 태우기도 한다. 나이 어린 수행자 또한 마찬가지로서 훌륭하게 도를 이루면 마침내 인간과 하늘의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집어람(삼보리경)의 이 말씀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에 대한 경계와 기대를 함께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의 도량에 들어서서 새 젊은이들은 어린왕자들이며 난해 맑은 수행자들이다. 지금은 작지만 결코 가벼이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해 바로 우리의 도량에서 인간의 무한 가능성이 남김없이 꽃피울날을 기다리려 큰 격려를 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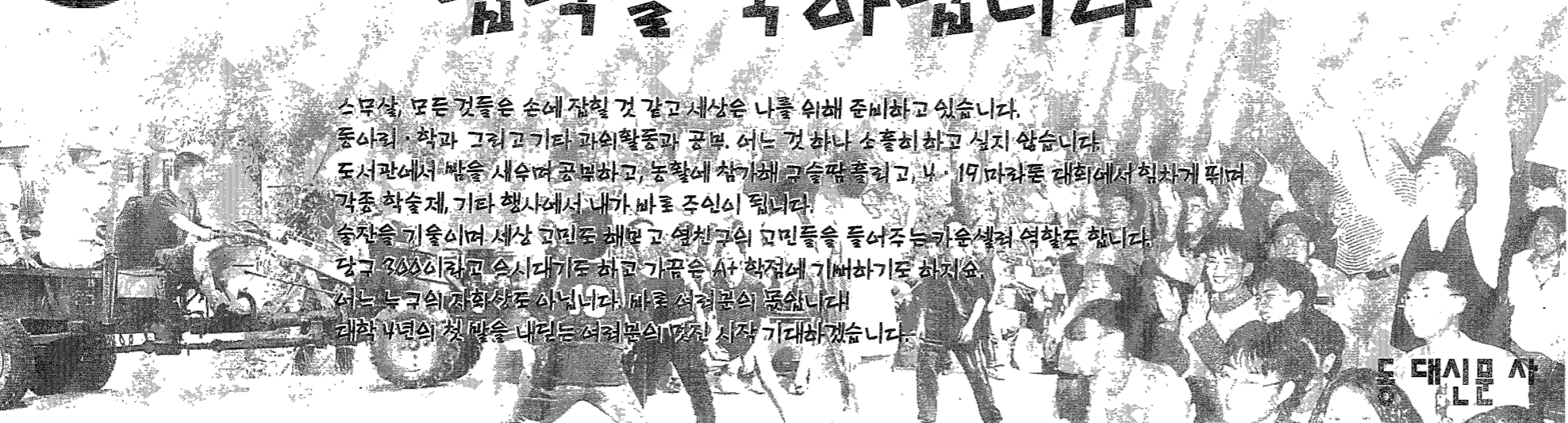
동대신문 수습기자 모집안내

-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 ▲ 응시자격: 현년 남·여 재학생
- ▲ 모집분야: 취재·사진기자
- ▲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인 사인 1 (지인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 원서접수: 3월 18일(수) 오후 5시까지
- ▲ 전형방법: ①자기 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면접
- ▲ 면접일시 및 장소: 서울캠 3월 18일(수)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경주캠 3월 19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 본사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혜의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입학을 축하합니다

스무살, 모든 것들은 손에 잡힐 것 같고 세상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사리·학과 그리고 기타 과외활동과 공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고, 농활에 참가해 고수관출리고, 4·19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힘차게 뛰며 각종 학술제, 기타 행사에서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됩니다. 승차승 기술이며 세상 화민을 해주고 열성고의 요민들을 돕어주는 귀순선생 역할도 합니다. 당고 3000리하고 수시대기도 하고 기공을 사·학전에 기꺼히기도 하겠습. 어느 누구의 기대도 사립니다. 따르 세력권의 들입니다. 대학 4년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멋진 시작 기대하겠습니다.



동대신문 사
신

새터, 미숙함 속의 어우러짐

비대위 진행 수월치 못해 ... 어려운 조건에도 공동체장 형성

'98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가 지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재학생과 신입생 2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삼포 일대에서 열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난다'라는 기치아래 열린 이번 새터는 사과대, 생자대, 공과대, 사법대, 예술대의 1진과 문과대, 이과대, 법대, 경상대, 야종의 2진으로 나누어 중앙공원과 단과대 행사가 진행됐다.

1진과 2진의 순서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중앙공원의 첫째마당에서는 동국문화회, 민속극 연구회 탈, 중앙노래대 아리랑이 공동으로 준비한 집체극 '다시 쓰는 수궁가' 공연이, 둘째마당에서는 손짓사랑회, 경당치우, 동계구름 등의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마당에서는 '미술언어로 재현된 여성의 꿈'이라는 주제로 총여학생회가 준비한 슬라이드 상영이 이어졌다.

중앙공원과 관련해 정규철(인문학부2)군은 "공연이 너무 보여주기식의 일방적인 면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새내기과 재학생 모두에게 알찬 공연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둘째날 열린 새내기 청년강좌는 가수 정태춘씨와 대중문화평론가 이영미씨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강연의 내용은 좋았으나 참가 학생이 적어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사과대의 한 학생은 "좀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들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강연이 전체적으로

잘마무리 되지 못한 것 같았다"고 운영의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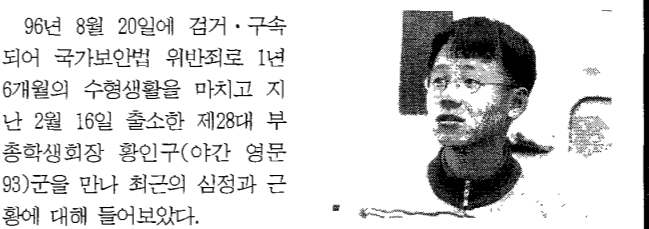
한편, 작년과 달리 불교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가 함께 참가한 이번 새터는 진행과 운영에 있어 다소 미숙함을 드러냈다. 첫째날에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원을 잘못 파악해 출발이 2시간 정도 지연됐고, 본행사에서도 시간 지연과 함께 기획행사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IMF라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전 국가적으로 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 굳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삼포까지 가야 했느냐는 문제도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새터를 준비했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새터의 본취지인 '새로운 공동체문화 건설'에 맞게 준비를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삼포까지 가게 됐다"고 밝히며 "2천 3백이라는 숫자가 함께 움직이는 행사여서 재정이나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새내기 새로배움터'는 말 그대로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이 선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과 '사람'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자리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번 새터는 기존의 많은 중앙공원이 줄고 단과대 중심의 공동체 놀이 등이 확대되어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알아가는 장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내릴 수 있었다.

“영원한 양심으로 남고 싶다”



황인구(제 28대 부총학생회장)군을 만나

96년 8월 20일에 검거·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년 6개월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지난 2월 16일 출소한 제28대 부총학생회장 황인구(야간 영문 98)군을 만나 최근의 심정과 근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연행 당시의 상황은.
=연태항쟁 당시 다른 한총련 중앙위원들, 지역총련 의장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야산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이 흐르던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 주변 학교의 수위 아저씨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프락치였다. 그런데 심정은 한마디로 '말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었다.

-수감기간동안의 생각과 고민은 어떤 것들이었나.
=당시의 연태항쟁이 국민들에게 왜곡돼서 전해졌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그때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좌익이나 용공으로 매도한 언론에 의해 그 진실은 가려워졌다.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지만 무능했고 온갖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었던 김영삼정권은 반드시 사법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본인이 되고 있는 양심수 문제에 대한 생각은.
=정통성이 없는 김영삼정권에 대해 올바른 말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려했던 사람들이 현재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있다. 또한 각종 비리들 저질

히전부터

성교육
O...새터 둘째날, 모 단과대는 새내기 장기자랑 한마당을 벌였는데.
재학생들의 환호와 격려 속에서 새내기들은 지난밤 같고 닳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은몸을 던져(?) 성(性)행위를 묘사한 새내기들에게 일부 재학생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여 주위 사람들이 민망하게 만들었으니.
이에 지켜보던 한 학생 말, "사춘기 시절 성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보여요
O... "신체검사 받으셨나요"
본관에서 나오는 한 학우를 붙들고 이렇게 묻는 이가 있으니.
혹시 병무청 관계자인 줄 착각(?) 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다름아닌 책장사들이라.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등장해 온갖 검안기들로 새내기들을 현혹시키는데.....
이에 옆에서 잡자고 들고 있던 최건무대자 왈 "소리가 보여요, 거짓말도 보여요"

두나라당(?)
O... 대선패배이후 당권경쟁하러 여당권쟁하러 장성없는 한나라당.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통과과정에서 거야의 힘을 거침없이 자랑(?)하더니 얼마전에는 총리인준마저 거부했는데.
이런 이유로 새정부는 출범 초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에 어떤 라디오 진행자는 이렇게 한마디 "한나라당인지 두나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

웬 날벼락(?)
O... 교육환경 조정에 역행하는 어떠한 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단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열린 전체교수회의장은 '98학년도 각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엄청난 파괴력의 발언이 있었는데, 다름아닌 내년도에 치러질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움직임이 보여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재단이사회의 경고가 있었다.
이에 본 회전문대 왈, "현시기 총리인준의 파장에서 총장선출의 난항을 보는 것같이 씁쓸하네요"

취업과 부업알선 ... 졸업생 및 휴학생도 가능

취업과(과장=김병수)는 학기 중에 부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고 있다.
재학생을 비롯한 휴학생, 졸업생까지 신청가능하며 희망지는 취업과 내 부업과에서 배부하는 부업상담카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업직종은 사무보조·과외지도·판매직·조사업무 등 다양하며 신청서는 1년동안 유효하다.

교무처 조기졸업 신청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97학년도 조기졸업 신청을 받는다. △7학기 등록을 필한 4학년 재학생 △취득학점이 급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 1백 40점 이상 △7개학기 누계 평점 평균이 4.0이상(F학점 포함) △기타 졸업여건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름 계절학기 수강시 조기졸업이 가능한지도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의동 개·보수 공사

강의동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과(과장=이창진)는 '강의동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내부 복도와 총 13개 강의실의 벽을 도색하고 바닥에 열화비닐 타일을 까는 이번 공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돼 어제(1일)까지 마무리되었다.

총대비대위, 새터 감사실시

제30대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주용·철4 이하 비대위)는 오는 4일과 5일 이틀동안 '98새내기 새로배움터 부지기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의 내용은 사업감사, 예산감사, 새터조직감사 등이고 과감사의 주체는 각 단위 대표자, 새터 주제, 사무장과 그 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람 등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4일-불대, 경상대, 생자대, 사법대, 예술대, 야종, 총여와 5일-문과대, 이과대, 법대, 사과대, 공대, 총화, 동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17일 상해사범대와 학술교류협정

양 대학간의 교육 및 연구활동 적극적 교류 기대
본교는 지난 2월 17일 중국의 상해사범대학과 33번째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교육 및 연구활동에 관한 자료, 출판물, 학술정보 교환 △교류 및 연구자의 교류 △학생의 교류 △공공연구원 및 학술회의의 공동개최 등이 체결됐으며 위사환의 이와 관련해 학술교류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학내 구성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상해사범대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퇴임교수 5명 도서 기증 ... 모교 사랑 모범 대

퇴임 교수들이 도서관(관장=임호일·독문학과)에 책을 기증해 모교사랑 실천의 예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순용(법학)교수가 60권의 책을 기증한데 이어 24일에는 손해복(법학)교수가 9백권, 강재룡(국민윤리학과)교수가 1천권, 김생만(토목공학)교수가 4백권을 기증했고 26일에는 오형근(불교학)교수가 3백권의 책을 기증해 기증권수가 총 2천6백50권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책을 기증한 교수님들의 모교사랑 정신은 높이 평가된다"며 "책을 기증한 교수님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오는 4일부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실시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98학년도 제 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을 실시한다.
정교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을 각 대학 교학과 및 학부(과)에서 배부받은 후 본인의 수강신청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정서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원을 작성하여 PC 정정후 교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시간표의 변경사항을 숙지해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신입·편입생 중 추가합격자는 금번 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어부바... 실패에서 열린 '98 새터에서 문과대 학생들이 공동체놀이를 하는 모습. 선·후배가 함께 뛰면서 어울리는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복수전공 신청

1. 접수기간 : '98. 3. 12(목) ~ '98. 3. 13(금)
2. 접수처 : 교무처 학적과
3. 지원자격
 - 가. '98년 8월 조기졸업 신청자 '99년 2월 졸업대상자(7번째 학기 등록자)로서
 - 나. 전공과정 이수시 취득한 학점이 매학기 18학점 이상이고, 전학년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단, 4학년 2학기는 제외.
4. 제출서류 :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유의사항 : 복수 전공자는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위 수여일자가 동일한 졸업증서를 동시에 수여함.

1998. 2. 25

교무처장

동국 사랑 대학원 살리기 운동

동국 사랑 대학원 살리기 운동은 반목과 대립을 화합과 단결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동국발전에 대한 지향과 실천을 전통국민이 함께 합의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1700여 대학원생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구호 속에서도 여전히 '주변'으로 머물러 있는 대학원생들이지만 동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줄 아는 당당한 주체로서 '동국발전을 위한 대학원생 1000만원 기금 조성운동'으로 동국사랑의 작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방학동안 동국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대학원 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불교학) 유희숙, 이재수, 배영희, 지역학, 태선주 / (인도철학) 한진우, 김수연, 강종원, 김현정 / (응용불교) 김영직 / (선학) 허미애, 윤규 / (국민윤리) 송선영, 김인영, 최선숙 / (국어국문) 채승수, 탁정실, 문숙희, 배연희 / (영어영문) 송재중, 오은석, 정영숙, 박병욱 / (일어일본) 이서연 / (독어독문) 임진선 / (한문학) 이현지 / (교육학) 이윤자, 김성대, 김용년 / (법학) 조경태, 김순자, 김진, 문성준 / (지리학) 안나영 / (미술사) 임지영, 정현철 / (한외국) 김지형, 조규선, 장규태, 김성진, 이지현, 이신규, 김성태, 장미경, 민성연, 한영희, 박성호, 이규원, 김광현 / (수학) 이재영 / (통계) 정용석, 이현남, 정철호, 김보은, 박은주 / (물리학) 김남호, 박승호, 이길호, 이성균, 정은영, 양석진, 허유범 / (응용생물) 박대균, 유병규 / (조경학) 장병현 / (임학) 송준경 / (정치) 박혁, 문성주 / (행정) 김정숙, 이순준, 이민규 / (사회학) 이호연 / (철학) 황보순민, 표진원, 김경모 / (무역) 김동수, 권호근 / (외국) 이준석 / (경제) 박종영 / (경영) 김도태, 권정희, 한재희, 김진규, 이성호 / (농경) 윤주이 / (농학) 박진서 / (건축공학) 전현아, 옥해정, 김광식, 김진희, 이주희, 김사우, 이영민, 김경민, 심원권, 안병주 / (기계공학) 김용호 / (산업공학) 조용환 / (건축공학) 김수현, 권오성 / (토목공학) 박정용, 송현웅, 정종진, 최영일 / (전기공학) 권학민, 송상호, 김대연 / (전자공학) 이형욱, 이상대, 이인재, 권성훈, 김진석, 최영준, 김주용, 신종수 / (화학공학) 송원일, 강원식, 김성준, 서영권, 한영희, 이태주, 한지원 / (식품공학) 강경모, 최영석 / (원공) 송자영, 이창환, 이희영, 조영민, 유덕영, 최석민, 김중식, 김진석, 이종영, 정찬성, 송미영, 손원석, 남중재, 고재정, 김진근, 김일부호, 오승현, 백건현 / (멀티미디어) 최영호이상 143명

발전기금 예금계좌: 114-20-033796 제일은행 박정진
동국사랑 대학원 살리기 운동 기획단

제 14대 대학원총학생회

제 1학기 특별시험

1. 시험과목(교사실은 추후 접수시 안내)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험시간
교양필수	RGC 005	컴퓨터실습 1	2	09:00 - 09:50
교양필수	RGC 008	실용영어 1	1	10:00 - 10:50
교양필수	RGC 006	영어회화 1	1	11:00
2. 응시자격 및 과목 신청
 - 가. 자격 : '98학년도 신입생(1학년 복학생 포함)
 - 나. 과목 : 2과목까지 (3학점 이내)
3. 시험일시 : '98. 3. 7(토) 9:00~
4. 시험장소 : 추후 안내
5. 전 형 표 : 과목당 30,000원
6.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 '98. 3. 2(월) ~ 3. 4(수) - 3일간
 - 나. 장 소 : 교무처 교무과(접수시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7. 전형방법
 - 가. 컴퓨터 실습1 :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하게 한후 이의 내용을 근거로 평가(실습테스트)
 - 나. 실용 영어1 :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를 시청 후 평가
 - 다. 영어 회화1 : 외국인 교수와 Interview로 전형
8. 합격자 발표 : '98. 3. 10.(화) 일 15:00(예정), 교무과
9. 합격후 성적 : A, A'

교무처장

학계·학원 이제 달라져야 한다 어용 교수 역사적 응분의 대가 치러야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을 시도하던 1993년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정치 판사와 어용 교수는 물러나야 한다고 소리쳤다.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러한 주장이 헛소리라 돼 버린 것을 보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시기에 그러한 소리를 되풀이한다. 이 소리가 앞으로 또 헛소리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다짐해 두고자 한다.

먼저 이제까지는 독재나 그 아류의 정권하에나 시세에 편승,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 시녀가 되는 판사와 교수가 용인될 수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부류가 기회주의적으로 박쥐처럼 변신하여 행세하는 것이 통하게 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는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한번도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곳에서 힘센 놈의 폭력과 사ibi의 위장이 판을 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제가 망한 해방후에는 친일파가 법조계와 학원에 동지를 틀고 살아 남아 실세가 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주하에서 모리배와 정삼배가 학

원을 기지로 이용했다. 군사 독재하에서는 견제내내 끈기와 교활성을 보여주었고 군정이 통치되는 혼미와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기법을 체득했다. 1972년 유신 쿠데타 이후의 학원의 몰락과 교원의 타락은 문민정부에서도 그대로 연장되었다. 문민개혁이 헛바퀴를 돌리며 주저 앉게 되자 그들은 법령과 관련 및 기록권의 권세로 무장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원천 봉쇄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군정유신의 나팔수가 시민운동을 한다고 탈바꿈을 해서 기만하며 날린다.

첫째, 군사독재와 부정재벌의 어용 시녀로서 학적 양심을 저버리고 시세에 편승하여 학문을 모독한 사ibi 학자의 실상은 있는 그대로 폭로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나제스에 영합 추종한 학자가 어떻게 심판되었는가 생각해 보라.

둘째, 그간에 학문의 이름으로 독재권력의 비리와 부정을 은폐분식해 오며 국민을 기만해 온 그들이 저지른 유해한 결과를 짊어지고 비판되어 시정척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레이트만 매국노가 영웅으로

학원민주화를 위한 제언

시사논단



한상범
법대 법학과 교수

찬양되는 바보짓이 없어지고,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무리함의 무모한 쪽거로 망친 나라살림의 혼돈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셋째, 우리는 학계와 학원에서 자기 한 몸의 출세와 영화를 위해 추태를 부린 자와 한편으로 자기 무능을 은폐하고 소신과 비겁함으로 권세에 동조한 지식인이라는 부류가 저지른 해악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무능하고 소심한 자기 시세에 적당하게 동조하면서 교묘한 처신으로 살아남으면서 불의를 묵인하여 그 동조자로서 그 공범이 되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다. 여기서 혹자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있나?"라고 모두가 책임이 같지도 않고 또 책임이 있는 한 시비를 가려서 정의를 세우야 한다. 그러한 일을 한 독일과 그런 일을 못한 일본이나 우리와 같은 '바보=못난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역사에서 떳떳이 살아남으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름이라도 팔리면 정가의 말석 감투라도 얻어 가지려고 민망한 추태를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무능하고 소심한 자기 시세에 적당하게 동조하면서 교묘한 처신으로 살아남으면서 불의를 묵인하여 그 동조자로서 그 공범이 되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다. 여기서 혹자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있나?"라고 모두가 책임이 같지도 않고 또 책임이 있는 한 시비를 가려서 정의를 세우야 한다. 그러한 일을 한 독일과 그런 일을 못한 일본이나 우리와 같은 '바보=못난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역사에서 떳떳이 살아남으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IMF 장학금 제도신설

인식 부족, 선정기준모호 감안 ... 신청기한 연장

등록금 걱정 한 시름 놓을 듯

경제 한파로 대학에서는 등록금 마련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기 위한 이른바 IMF 장학금 제도가 분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신설돼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을 위한 IMF대여장학금 제도를 지난 1월26일 확정·발표했다. IMF대여장학금은 '98학년도 1, 2학기를 기준으로한 일시적인 장학금 제도로서 재학생 중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2백명(서울캠, 경주캠)을 선발해 무이자로 1백만원의 학자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2년내에 2회 분할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IMF대여장학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해 지난달 27일까지 장학과(과장=오종호)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서울 캠 9개 단과대에서 19명만이 신청·접수했다. 물론 방학기간에 장학과 제도가 확정된 터라 학생들에게 홍보가 미비한 건 사실이다. 이에 장학과는 홍보부족을 감안해 3월 첫째주까지 신청을 받음 예정이다.

경주캠도 마찬가지로 신청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점을 감안해 오는 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경주캠 한 관계자는 "실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IMF대여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계가 어려운 실직자 자녀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IMF대여장학금 시행에 있어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선발기준이 실직자 자녀 및 생계가 어려운 재학생들이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거쳐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만 짧은 시간내에 어느 학생을 선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생을 추천할 때 학과(부)장은 누구보다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 순위로 확정해 선발해야 하겠고, IMF대여장학금 실무담당자도 심사숙고해서 선발기준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한편, IMF대여장학금과는 별도로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에서는 교수의 회비를 모아 IMF특별장학금을 5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대여형식이 아닌 지급형식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장학금이나 대여금의 해



택을 받지 않고 있는 학생으로 생활보호대상증명서·미과세증명서·과세증명서 중 1통·자기소개서(IMF 특별장학금 지원 동기),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를 구비해 오는 12일까지 교수회에 신청·접수해야 한다.

작금의 경제난 속에서 학비 마련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학교 측의 배려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98학년도 1학기의 장학금제도의 홍보부족, 선발기준 원칙 등 미비한 점을 고려해 다음 학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IMF대여장학금과 IMF특별장학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부

알림
이번 호부터 등록만평 필자가 본사 신웅우 편집부에서 김경일(미술3)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설

불교종합병원 건립 적극 동참하자

새해가 시작에 앞서 이것저것 준비에 부산을 떨던 우리들은 남보를 하나 접할 수 있었다. 지난 23일,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던 일산 불교종합병원의 건축허가가 고양시로부터 드디어 난 것이다. 이는 실로 전 불교계의 열원이 학교당국의 노력을 통해 맺어진 결과이지 아닐 수 없다.

1천6백년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함으로써 불교종립 대학인 본교는 불교발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불교의 자비정신 전파에서도 교두보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불교종합병원은 한·양방 협진을 통한 독자적이며 참신한 의료 체계확보와 노인병·성인병 등의 특정 진료분야 육성으로, '불교정신에 기초한 의료 복지 구현'과 함께 불질·정신을 고루 융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천여개의 한·양방 병상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수많은 불교신도들을 수용하고, 한·의과 본과 생들의 임상실현의 교육환경 또한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긴 준비과정을 통해 건축허가라는 결실을 맺어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 도달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것은 아니다. 병원 건립비용 총 공사비 1천2백억원의 재원마련의 고충때문이다. 학교당국에서는 발전기금과 함께 수익사업을 통해 8백5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백50억원은 불교종도들과 동문들의 힘을 얻어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지만, IMF시대에 직면한 이때 재원을 확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리는 불교종합병원 건립이 갖는 그 의의와 효과를 숙고하여, 다시 한번 전 불도들과 동문들의 힘을 모아낼 필요가 있다. 1천1백만 불도들이 조성여려 1만원계좌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동문뿐만 아니라 종단에서도 재원 마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들은 21세기를 지향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다달았다. 불교종합병원이라는 21세기 비전을 준비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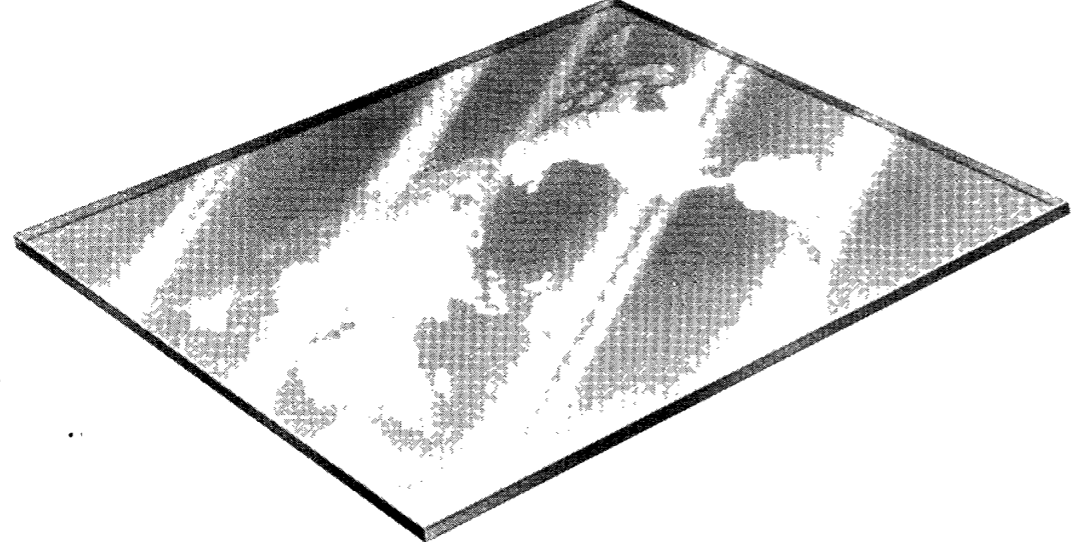
경주캠, 식비인상 학생입장 고려해야

개강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학기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경주 캠퍼스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학교측과의 임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식당업주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식비인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정식 1천 7백원을 주 골자로 하여 전식단 가격을 평균 40%가량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하나는 식비가 너무 자주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5년 3월부터 정식이 9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된 이후, 96년 9월 또다시 1천 3백원으로 이제는 1천 7백원대로 협상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하나는, 인근 타대학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현재 경주캠의 식비가 결코 저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학교·업무·학생회측 3자가 만나 이에 대한 논의를 4차례나 가졌다. 그러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책임자급의 진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회측은 '식비동결'의 기본 원칙만 고수할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측의 입장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료조사를 충분히 한 뒤, 교직원 복지운영위에 안전으로 상정 논의해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학교측의 태도는 일면 신중을 기하는 측면이 있으나 IMF한파로 등록금도 겨우 마련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동결'의 원칙을 확고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주측은 일방적인 식비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식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마다 반복되는 식비인상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가운데서 이뤄지는 무리한 식비인상은 향후 불요불급한 마찰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식당의 직영을 언급하고 싶다. 물론 직영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이러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식비동결'의 기본 원칙만 고수할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측의 입장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료조사를 충분히 한 뒤, 교직원 복지운영위에 안전으로 상정 논의해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학교측의 태도는 일면 신중을 기하는 측면이 있으나 IMF한파로 등록금도 겨우 마련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동결'의 원칙을 확고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주측은 일방적인 식비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식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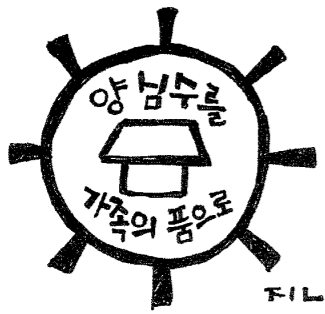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판유리·관유리·유리섬유·유리장섬유·결정화유리·건축용안전유리·자동차안전유리·경질유리·실란트

동약로



보라빛 수채화

지난달 27일, 서울역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 손에는 어김없이 우산이 들려 있었으나 보라빛 보자기를 목에 두른 40여명의 학생들과 아주머니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양심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바삐 길을 가던 시민은 잠시 보라빛 보자기를 두른 사람을 훑어 본다. 몇몇 사람은 가던 발길을 재촉하지만 노부부며 아들·딸과 동행하는 부부, 학생들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서명을 한다.

"글쎄, 양심수란 사람들 잘 모르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매스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 대충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도 알죠. 난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바삐 서울역안으로 사라지는 한 시민의 어깨가 비에 젖어 있다.

"0.75평에 갖혀 있는 4백90여명의 양심수를 위해 저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빛속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어머니들이 마이크를 잡고 호소한다.

"동서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전·노씨가 사면이 됐습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도둑질한 그들은 나왔는데 왜 형 한조각 훔치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은 벌이 되고 여류가 지나고 다시 봄이 오는데도 나오지를 못한다 말입니까? 그들의 죄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지난 2월 한달 동안 민가협 어머니들과 학생들은 평일 정오만 되면 그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어머니들의 들음은 서울역광장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리에 비할까 한 때가 하늘로 날아갈 뿐 경관이 바뀐 2월의 어느날 양심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들리지 않는다. 최진 기자

제1회 인권과 평화단체 네트워크 행사



사진은 지난 26일 성공회 성가수녀원에서 개최된 '제1회 인권과 평화단체 네트워크 행사'의 모습.

인권문제에 대한 다각적 논의의 자리

성공회대학교 인권과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공회 성가수녀원에서 '전환기의 인권과 인권교육'이란 주제로 '제1회 인권과 평화단체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

성공회대학교 교병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교수의 인사말 △오재식 선명회 회장의 '새 세계 질서의 인권'에 관한 발제 △조

용환 변호사의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과 과제'에 대한 발제 △성공회대학교 이재정 총장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인권과 평화'에 대한 기조연설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의 사회로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교수, 박원순 변호사 등이 참여한 종합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인사말에서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교수는 "인권을 법적 사회적 의미로 국한 시

키지 말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불교 인권회, 한국 유네스코, 전국 평화와 인권 연대 등의 단체 회원들과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철>

발제 1
세계질서와 인권
1948년 서구적 자유주의 사상에 기본을 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시민적 자유의 획득과 보장, 복지제도의 확립과 거기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을 권리가 간간을 이룬다. 이어 1966년에 UN이 제정한 인권규약 중 A-규약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제창된다. 이 규약은 1948년 이래 18년 동안 인류사회가 경험한 다양한 역학관계와 좁아지는 지구촌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재식 선명회 회장

7·80년대에 들어와서 인권은 최우선적인 가치로 자리하게 된다. 1986년 UN의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선포됨에 따라 발전·개발의 권리와 나란히 평화를 누릴 권리 그리고 상이권(내가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과 같은 중심가치 확장의 일익이 전개된다. 인권이 국민국가의 정통성에 도전하게 된다. 1995년 3월, 코펜하겐의 UN 사회발전 정상회의는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에 우선한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1989년 12월 미국의 부쉬 대통령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제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인류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질서가 세워질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미국 중심의 힘의 질서가 다시 머리를 쳐들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아직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각국 자변층의 자각과 정보화의 진척은 권력중심의 일방적인 통제를 어렵게 하고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용의 정신을 요정하고 있다. 관용과 용서와 화해를 고취하고 진작시켜서 더불어 사는 나라와 사회를 만드는 일이 새질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 2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과 과제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이 가지는 특징은 국가정책에 '인권'의 개념 도입, 민주주의를 경제성장과 함께 국정지표에 포함하여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국가적 최우선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의 소의 계층 또는 피해자 집단과의 대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등 기존 국가기구의 한계인식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인권문제에 대한 현실인식과 철학의 부족 △추상적인 내용 △직접적인 부분에 치중 △추상적인 목표와 구체적 과제의 모순 △국가서비스 개선, 행정효율, 산업경제적 측면 강조, 인권관점 미약 △국가기능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인식부족 △개방의 주체와 전략 결여 등이 문제점과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인권정책의 공개적 청명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통합과 화해를 위한 과거 청산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국가와 국민 관계의 민주적 개혁 △사상, 표현의 자유보장 △사회, 경제적 권리의 확대, 분야별 최저기준 설정, 재판규범 강화 △남녀평등 실현 △국제인권조약과 기준에 따른 인권보조 △국제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여 등의 과제들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은 인권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 수행은 대학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와 체계적 협조 속에 국제적 인권논의와 인권기구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리=사회부

기고-이승만 박사 흉상 건립 부당성

'이승만 대통령은 헌정에 악선례만을 남긴 인물'

1998년 국회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가 국회 로텐다홀 로비에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흉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이승만과 신익희 선생의 흉상을 국회에 세우려다 이승만의 헌정 유린을 문제삼은 국회 운영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흉상건립안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김수환 국회의장은 이승만 흉상건립 안전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사들은 사실을 통하여 이승만 흉상 건립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현대사의 흐름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뿌리 지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이승만의 흉상을 국회에 건립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국가 반세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지도자 역할을 한 국부(國父)가 없다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고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렀기에 건국대통령이자 초대 국회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흉상을 국회내에 건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승만의 국회흉상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꼭바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승만은 우리의 민족정신과 민주이념에 먹물을 칠해놓은 방해꾼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일제 잔재를 자기의 집권을 위해 잔존시켜 놓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해를 우리에게 끼쳤기 때문이다. 이 점을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이승만을 건국원훈으로 떠받들으로써 그의 반민족적·반민주적 기행행위를 가려버리려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발체개헌, 사사오입개헌, 3·15부정선거 등으로 한국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인물이다. 이승만이 한국 헌정에 미친 영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재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자신의 집권과 영구집권을 위해 친일파를 온존시켜 취약한 권력기반으로 이용하였다는 점,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반공주의라는 합법적 테러리즘을 동원하여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국가를 지키려고 부어준 계엄권을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전쟁의 와중에서 계엄을 선포 개헌에 악용하였다는 점, 개헌과 정에서 의회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남치기통과의 악선례를 남겼으며 정권유지를 위해 경찰 등의 억압기구를 통한 강압적 지배를 일사강행하고 관련단체를 동원한 관제테모로서 민의를 조작하고 정치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이데올로기로 내세운 반일정책은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고 이들을 기용한 사실 자체도 감정적 반일정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이승만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운 반공주의는 국가체제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보다는 정권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배제하고 말살하는 조치로 전락·악용하였다.

셋째, 이승만의 반의회주의적 행태는 국가체제 보위를 위한 계엄을 집권당 정을 위한 개헌에 악용함으로써 헌정기간 내내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세력들이 계엄을 악용하여 정치(政治)를 정치(征治)로 만들어 버렸고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사전정치작업으로 야당과 언론에 제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기 위해 국가보안법·지방자치법 개악에 무술경위를 동원하여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짓밟고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경찰력과 관련단체를 이용하여 탄압을 가하였고 각종 불법적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의회주의를 철저히 유린하였다.

이렇듯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헌정사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더 많다. 이승만은 4·19혁명때 이미 독재자로 낙인찍힌 지 오래이다. 또한, 4·19혁명 당시 탑골공원에 높이 서있던 이승만 동상이 국민들 손에 의해 넘어뜨려졌다. 현행헌법은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로 이승만과 자유당의 발발적인 독재에 항거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국민에게 추앙받는 정당한 정권이라면 무엇보다도 나라의 근본법인 헌법 전문에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의 민주이념·민주정신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계승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이 역사인식을 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할 때, 수구기득권 세력들과 일부 언론들은 역사왜곡 미화작업으로 역사뒤집기를 시도한다. 이제부터라도 눈을 부릅뜨고서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준동을 감시하여야 한다. 개인 욕심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에 악선례만을 남긴 독재원흉인 이승만 흉상을 민의의 정전에 건립하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철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동국사랑저금통'을 드립니다

작은정성이 나라경제를 살리고 학교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축하는 마음으로 나라경제를 살리고 학교발전에도 기여할 '동국사랑저금통'을 드립니다. 신입생과 재학생은 물론 동문, 학부모에게 동국사랑의 작은 실천이 될 '동국사랑저금통 갖기 운동'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참여대상 : 본교 재학생, 동문, 학부모
 - ☑ 배부일시 : 98. 3. 2(월)~3. 31(화)
 - ☑ 배부 및 접수처 : 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본관4층)
- 전화 : 260-3794/5

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1998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포로필



▲구승호(문과대 인문학부 전임강사)
· 본교 국민윤리과 84년졸
· 86년 본교 국민윤리 석사학위 취득
· 92년 다름슈타트 철학박사 학위 취득
· 전 본교 강사
· 이데올로기, 사회철학 전공



▲정우영(문과대 국어문화부 전임강사)
· 본교 국어국문학과 76년졸
· 86년 본교 국어학 석사학위 취득
· 96년 본교 국어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성동 기계공고 교사
· 국어학(음운론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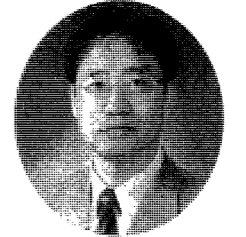
▲심희기(법대 법학과 교수)
· 서울대 법대 78년졸
· 80년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 취득
· 91년 서울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 형법 전공



▲김상수(법대 법학과 조교수)
· 고려대 법대 85년졸
· 88년 나고야대 법학 석사학위 취득
· 92년 나고야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일본 나고야대 법학부 조교수
· 민사소송법 전공



▲김인재(경상대 경영학부 전임강사)
· 서울대 산업공학과 83년 졸
· 85년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
· 96년 네브라스카대 경영정보학 박사학위 취득
· 전 한남대 조교수
· MIS(Database) 전공



▲민창식(공과대 건축·토목공학부 조교수)
· 본교 토목공학과 81년졸
· 83년 본교 토목공학(구조) 석사학위 취득
· 92년 N.Carolina Univ. 철근콘크리트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제주대 조교수
· 콘크리트공학 전공



▲진상운(공과대 건축·토목공학부 전임강사)
· 한양대 건축공학과 89년 졸
· 93년 일리노이대 건축시공 석사학위 취득
· 97년 일리노이대 건축시공 박사학위 취득
· 건축시공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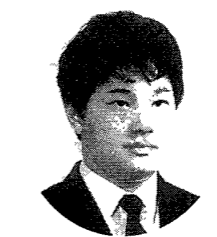
▲유병승(공과대 식품공학과 전임강사)
· 본교 식품공학과 83졸
· 86년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학위 취득
· 92년 Rhode Island Univ. 식품가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세종대 식품공학과 겸임조교수
· 식품가공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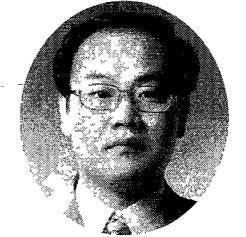
▲이강우(정보산업대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전임강사)
· 연세대 전자공학과 85년 졸
· 91년 S.California Univ 컴퓨터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 97년 S.California Univ 전기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미국 S.California대 연구조교
· 시뮬레이션 전공



▲강택구(사범대 역사교육과 부교수)
· 본교 국사교육과 82년 졸
· 86년 이스트워싱턴대 서양사교육 및 근대사 석사학위 취득
· 96년 본교 사학(서양사교육 및 근대사) 박사학위 취득
· 전 용인대 부교수
· 서양사 교육론 전공



▲이중권(사범대 수학교육과 전임강사)
· 고려대 수학교육과 89년 졸
· 91년 Georgia Univ. 수학교육 석사학위 취득
· 96년 Georgia Univ. 수학교육 박사학위 취득
· 전 춘천교육대 전임교수
· 수학교과교육 및 수학교육사 전공



▲구분철(인문대 외국어문화부 전임강사)
· 고려대 수학교육과 89년 졸
· 본교 영문과 88년 졸
· 92년 본교 영문학 석사학위 취득
· 97년 본교 영문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강사
· 영미문화비평 전공



▲황의서(법정대 법정학부 전임강사)
· 본교 정치외교학 85년 졸
· 87년 본교 정치학(일반정치) 석사학위 취득
· 96년 본교 한국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강사
· 한국정치 전공



▲문태수(상경대 경상학부 전임강사)
· 한국외대 아랍어과 86년 졸
· 88년 한국외대 경영정보학 석사학위 취득
· 96년 고려대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전 경주대 전임강사
· MIS 전공



▲문상호(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의대 92년 졸
· 전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 정형외과 전공



▲김중호(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영남대 의대 90년 졸
· 94년 영남대 산부인과학 석사학위 취득
· 전 청송의료원 공중보건
· 산부인과 전공



▲정진화(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의대 90년 졸
· 전 서울대 병원 레지던트
· 소아과 전공



▲황대하(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의대 90년 졸
· 전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 진단방사선과 전공

신학기 특별 할인 판매

품목	기간	장소	세부내역	연락처
안경 및 렌즈		샘물 안경원 (다량관 지하)	▶ 각종 안경테, 렌즈 등 20% 할인	260-8969
PCS 및 잡화류		잡화점 (다량관 지하)	▶ 016 PCS 삼성 SCH 1100F ₩195,000 엘지 LGP 1300 ₩180,000 현대 걸리버 1200 ₩180,000 ▶ 워크맨, 가방, 의류, 펜시류 등 할인 판매	260-8790
노트북 PC	'98 3.2 ~ 3.20	도서관 앞	▶ 모델 : 삼성 노트북 S600-A1 ₩2,585,000 ▶ 사양 : CPU 150MHz(MMX), 12.1 SVGA TFT EDO 16MB, HDD 2.1GB VIDEO 2MB CD-ROM 20배속, 사운드 16bit 스테레오 무게 2.98kg, 모델 33.6Kbps 기본 장착	296-0015 297-1015
		뉴텍 인규 (다량관 2층)	▶ 모델 : 대우 솔로 CN530-1G307C ₩2,717,000 ▶ 사양 : CPU 166MHz(MMX), 12.1 SVGA TFT EDO 16MB, HDD 2.0GB VIDEO 2MB CD-ROM 20배속, 사운드 16bit 스테레오 무게 2.5kg, 모델 33.6Kbps 옵션	728-2952 ~7

새내기 조합원 여러분의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활협동조합

동국참사람 봉사단 사회봉사 단원모집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는 '98학년도 봄학기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재학생, 교수, 직원'
2. 신청접수기간 : '98. 3.9(월)~3.13(금)
3. 봉사활동기간 : '98. 3.23(월)~'98. 5.30(토)
4. 접 수 처 : 학생처 장학과(☎260-3050)
5. 봉사활동대상단체 : 32개 단체(봉사활동 내용 : 150여 종류) 아동·청소년 복지 단체, 시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공공기관 등)
6. 봉 사 결 과 : 기간내에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점(교양선택, 1학점 PASS, 33시간 이상)을 부여하며, 취업·진학을 위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개인 및 단체접수를 환영합니다.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봉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봉사대상단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 봉사내용은 각 대학 교학과 및 사회봉사 계시관(장학과, 도서관, 본관, 학생회관, 동국관)에 공고합니다.

♥ 동국참사람봉사단은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드는 동국인들이 함께 합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장

제1차 외국어특강

구분	영어회화 강사 및 강의실			English Composition	TOEIC	Listening
	Beginner	Intermediate	Higher Intermediate			
오전	07 : 50 ~ 08 : 50	Angelika Gatos (강의실A)	Nicholas Garrison (강의실B)	Paul Leslie (L 309)	Paul Sather (L 310)	Leon Kaye (Lab C)
	17 : 00 ~ 18 : 00	Troy Body (강의실A)	Bridget McGrath (강의실B)	Bruce Dawson (L 309)	Eric Prochaska (L 310)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	Paul Treadway (LAB C)
수강료	5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 강의실은 시정상 변경될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람 * 기간은 지반반과 다르게 변경 되었음

■기간: '98. 3. 9~4. 17(6주) ■접수처: 외국어교육원(동국관 L동 2층)
■'98. 2.23일부터 선착순 마감

외국어교육원
260-3470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 신청서 접수

'98학년도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98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
2. 자격종류 :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3. 접수기간 : '98. 3.2(월)~3.6(금)
4. 접 수 처 : 각 대학 교학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교학과에 비치된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요령을 참고할 것.

사범대학장

책소개

셰익스피어도 바퀴벌레를 보고 웃었을까

“젊은 영미시의 두레박을 통해 나날의 우물 속에서 삶의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문해 영씨의 글은 마치 프리즘을 통한 무지개처럼 찬란한 광채를 뽐내낸다”

이처럼 문화평론가는 추천인의 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림을 곁들여 주옥같은 영미시를 엮은 이 책은 젊은 대학인에게 불렛살처럼 따스한 여유를 안겨줄 것이다.

여백, 정가 7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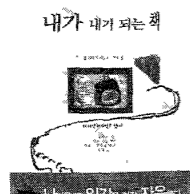


내가 내가 되는 책

“자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고도 모른다”

미국의 테리 롤 웨터커라는 카운셀러의 글을 이선희가 번역한 이 책은 사랑·경쟁·모험·성공 등의 주요 테마를 통해 자기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자아를 진정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한다.

국립미디어, 정가 6천9백원



조정래 석좌교수가 권하는 책

나무야 나무야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며 깊은 사색의 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88년 통일 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20년간 복역했던 신영복씨가 개인의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돌베개, 정가 6천5백원

뿌리

“세계를 지배하는 백인문화의 뿌리가 비과학·비문화로 대표되는 흑인문화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큰 충격을 느낄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알렉스 헤일리의 작품으로 많은 번역서가 발간되어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 책은 한 백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며 한국인에게조차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문화충격을 안겨주었다.

흔히 우리민족은 일찍부터 동북아 문화권에서 문화민족이라고 알려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문화 창달에 힘써,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전통을 확립하게 되었다.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사는 일찍부터 외침과 내란 등 끊임 없는 시련을 이겨내면서 성장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다. 것처럼 거둔 역사적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신념이랄까, 용기는 우리민족의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로부터 나왔다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옮겨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라 할까, 역사적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그 시련들 중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들어 보면, 남북 분단에서 오는 민족문화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일찍이 고대사회가 중세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역사 전통과 문화적 속성이 서로 다른 삼국을 통일하는데 성공했던 역사적 사례가 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삼국 통일과정에서 활용된 조상들의 지혜를 역사적 교훈으로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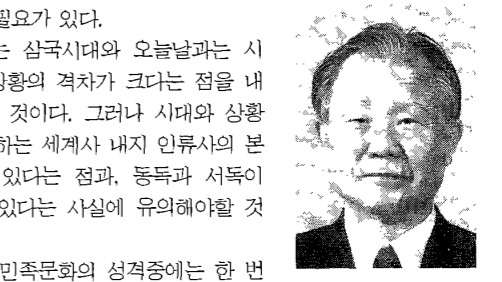
우리는 이상의 성공사례와 교훈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는 민족문화의 이질화 내지 남북 분단

통일에 대한 믿음 달하나 천강에

교훈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자는 삼국시대와 오늘날과는 시대 및 역사적 상황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의 격차를 초월하는 세계사 내지 인류사의 본질적 공통성이 있다는 점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선례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성격중에는 한 번 내세운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는 강인성, 대립 갈등과 혼란을 조화롭게 종합하는 종합 및 조화성은 물론, 철학자이상의 종교지향적 포용성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유한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그때가 좋았지” ... 복고열풍

경제위기 불안심리 과거애착으로 나타나 온고지신 자세로 현실 직시해야



이 시기가 갖는 감정으로 불투명한 현실에 대한 인류 공동체의 동일한 문화회귀현상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IMF시대를 거치며 과거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며 복고주의가 나타났다. 이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국어교육부 장영우 교수는 “일제시대를 거친 세대들이 ‘그래도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린시절 즉 유년기에 대한 향수에 젖어 그 시대를 회고하는 것이 일제시대 그 시대상황이 현재보다 나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숙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고주의에 대해 ‘무작정 옛것이 모범일 수는 없다’는 우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현대인은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지쳐, 문명의 이기 속 무료함으로 개인사적 지난날을 회상하거나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꾼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의 휴식에 지나지 않는다. 휴식은 내일을 위한 활력을 주지만 구체적인 현실문제의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휴식이 지나치면 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현상되고 보니 복고주의는 현재 문화경세의 하나의 흐름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복고주의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의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 아닐까요? 일지라도 없고 당장 생계도 막막해 지는 상황인데 지난날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을 수도 있잖아요” 사범대 역사교육과 이종희양의 말처럼 대부분의 문화회귀자들 또한 경제 불황이 낳은 불안심리를 현 복고주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이모, 문화방송은 ‘육남매’를 방영해 기성세대에게 6~70년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극무대에서는 신파극이 부활하여 ‘울고넘는 바람재’, ‘불효자는 윤니다’ 등이 상설리에 막을 내렸으며 경제불황 속에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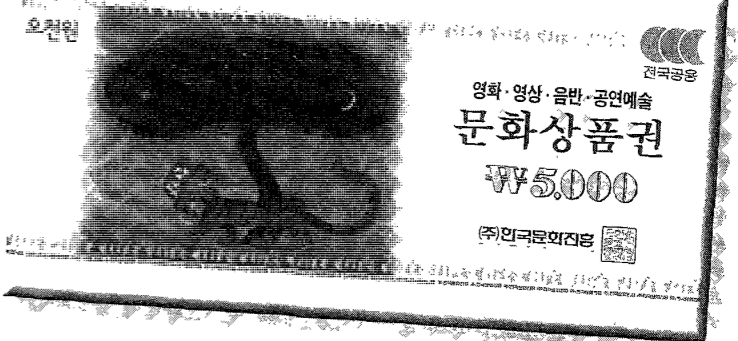
불황을 원인으로 한 단편 단편의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복고주의는 현재 문화경세의 하나의 흐름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런 과거에 대한 작은 욕구 내지 향수들이 모여 현재 우리사회의 복고주의(과거의 상태나 체제로 복귀하려는 움직임)를 조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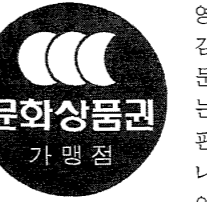
작년 모대학의 설문조사에서 발단이 된 박정희 신드롬이 진보연론의 비판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자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문화분야에서도 복고열풍의 증후가 나타나고 있다.

96년도 소설 ‘아버지’가 연극, 영화로 제작돼 화제에 오르자 문학계에는 복고소설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이 중 이문열의 ‘선택’은 “전통적 가부장제를 옹호하며 여성의 독립된 자아를 부정한다”는 비난 속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서울방송이 ‘육이



문화상품권, 16일 선택
“영화·연극 현금없이 관람한다”
경기불황속 새로운 활력소로 기대



현금 없이도 영화·연극등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 오는 16일부터 시판된다. 뿐만 아니라 음반 구입이나 비디오 대여에도 이용될 예정이다.

문화상품권은 전국유관 도소매업체 등 영상음반 단체 4개, 전국극장연합회 등 영화 단체 2개, 한국연극협회 등 공연예술 협회 10개 등으로 구성된 (주)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한다. 초기에는 5천원권으로 판매되며 추후에 1만원, 2만원, 5만원권도 발행할 예정이다.

도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은 전국 5천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도 한국문화진흥이 가맹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중구 지역에서는 중앙·파카디리극장 등이 가맹점으로 확정됐으며 중구에 있는 나머지 공연 예술장도 한국문화진흥

CHUNGMOON
http://www.chungmoon.co.kr
개강 3월 2일

● 기초 한인 영어회화
- Side by Side, Interchange, Communicate
● 미국인 영어회화 (EFL, Free Talk)
- 주 3회 (1월 30분/Level test, Native Speaker, 철저한 학사관리)
● 유학, 진학, 승진, 취업영어
- 엘리트 TOEIC, 인박사 TOEIC, TOEIC L/C R/C, 아카데믹 TOEFC, TOEFC L/C, GRE, 대학원입성영어
● 영어 청취
- 스피킹, 청취, 기초 L/C, 미국어 Hearing, AFAN.
● 영어 독해, 영작, 어휘
- 영어논해, TIME, 영작, Vocabulary
● 일본어
- 초급, 중급, 일인회화, Free Talk
- 일어종합반, N4, N3,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 중국어
- 초·중·고급 문법, 초·중·고급 회화
- Screen 중국어, CCTV,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 프랑스어
- 초·중·고급 문법, 독해, 비디오 청취/회화
● 주말특별반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청문외국어학원
종각역 종로서책 뒤 738-5151 (대)

PAGODA 개강 3월 3일 현재정수중

신입생 여러분! 입학축하합니다

http://www.pagodaac.com

미국인 영어회화 SLE (학년 12명 / 1월 1개반) 집중 영어회화 (1월 5개반 / 2개반)	기초 영어회화 SIDE BY SIDE · INTERCHANGE COMMUNICATE · BASICS NEW PERSON · GATEWAYS
취업·진학·유학 TOEIC · TOEFL · G-TELP AFKN · READING & VOCA WRITING · TIME · GRE · GMAT	일본어 기초 일본어 (문법 & 회화) 일본인 회화
전문 프로그램 19기 집중 영어회화 맞춤식 개인지도 (TEL 615-4020)	NEW 최신 프로그램 대학편입 영어 통신영어 강좌 (TEL 777-4401)

상당문의
중문 274-4000 강남 501-4002 신촌 717-4000
입구정 3442-4000 부산서면 (051)802-5001

■ 편입반 20인원 수강신청 시스템 - 출근·업구정·강남·신촌 파고다 4개학원 어디서나 원하는 학원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파고다외국어학원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Completely Updated!

美기자 협회 (The Associated Press) 공식 사전
전세계 8천만 지성들이 애용하는 사전

150,000이 넘는 표제어와 700개 이상의 Illustration
최신 미식 영어(New Americanisms)에서 첨단 과학 용어까지
신속한 이해를 위한 석학(碩學)하고 간결한 정의
최신 언어 사용을 위한 수천 개 용어
세련된 작문에 꼭 필요한 편집 및 문체 가이드

이 시대 지성을 위한 보람이 22,000원
20%할인 행사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달간 전국 모든 서점에서!

Prentice Hall Korea Tel (02)3142-5776 Fax (02)3142-5778

중외·월드·국제어학·제주도·제미니·수학여행·해외여행·여권비자·신촌어학

중외어학 메트로여행

상임교문 金榮一
'63정치 정치와 총동창회 초대사무국장

(100-09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39번지
남대문 국제화재빌딩 옆 남산빌딩 301호
TEL: (02) 773-8887 FAX: (02) 773-8553
호출: 015-338-2023 (부채시 호출요금)

영상매체비평

- TV드라마편
문화방송 미니시리즈
'사랑'

'사랑', 그 감미로운
우울에 대하여



"보편적인 관념과 정서로 투영했을 때 비록 비일상적인 것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후 더 큰 힘을 갖는 사람의 진정한 속살을 그려내 보겠다"

변한 인물과 변한 상황에서 억지스럽게 엮여 가던 TV 드라마들 속에서 용감한 전사의 뉘앙스였던 드라마 '사랑' 제작진의 당찬 목소리는 신선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드라마 '사랑'이 가졌던 무기는 이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

'나나' 좋은 친구' 라던 문화방송이 연일 컴퓨터 통신에서 욕을 먹고 있다. 이 네티즌들이 '프로그램도 일종의 상품이다'라는 자본주의 매체를 리를 모를 만큼 무지한 수용자들이 아닌데도 '사랑' 제작진은 시청률이 곧 광고라는 공백한

상품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제작진이 아주 기초적인 전부의 원칙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의 원칙이래 이른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전술을 운용해 나가는 것인데, 개선방향을 두고 작가와 충분한 협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로 프로그램 제작의 대원칙, 기획방향을 도중에 전면 수정하는 서투른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상황대응이라는 전술에서도 드라마 '사랑'은 일단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총알없는 정장대 나신 전사의 어깨위엔 오로지 광고 수주물량으로만 프로그램이 평가되는 시청률지상주의, 그

맹목적인 무지함과 상품성으로 철저히 포장된 제작논리만이 힘겹게 프로그램을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의 희망은 없는가? '누가 얼마나 봤느냐'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시대엔 사랑이라는 매혹적인 주제도 감미로운 우울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시청자의 머리수만 세는 시청률의 독재로부터 숨통을 터놓아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자, 방송사 경영진, 광고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시청자들 모두가, 그 기준이 너무도 단순해서 때로는 폭압적이기까지한 시청률 환상에서 자유로울 때만 우리는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두자리 시청률 이외에 시청자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등 다양한 변별로 누가 얼마나 봤는가를 측정하는 질적평가방식에도 눈을 돌려보자. 다양한 수용자 비평과 공정하고 합당한 평가 기준 마련 또한 우리가 시청률지상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질적평가 방식은 피플미터기를 이용해, 시청률 결과를 방송 다음날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프로그램 피드백이 느리게 전달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시청률에 의해서만 프로그램이 좌지우지되는 현 제작장토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성순
독립프로덕션 케이프로(주) 프로듀서

그 현장을 찾아서

중구·남구·동구

열린장터

열린 장터는 가족을 생각나게 한다. 넥타이는 아버지를, 핸드백은 어머니를, 스웨터는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열린 장터는 그야말로 파스한 온정이 깃든 곳이다.

본교 학림관 건물 옆에 위치한 계산관 앞마당에서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열린장터는 원서에서 잡지류까지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고 있는 '도서장터', 의류와 생활용품들을 취급하는 '알뜰장터', 생활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학생·교수 등이 재활용 차원에서 기증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1백원에서부터 최고 1천원까지 저렴하고 완전 무인판매로 이뤄진다. 96년에는 이렇게 마련된 수익

금으로 각 강의실·교학과·부서에 2백여개의 쓰레기통을 기증하기도 했다.

열린 장터의 이용자는 다양한데 재학생, 교수, 직원 등 동국인은 물론이고, 중구 주민들, 재학생 학부모,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 등도 단골손님이다. 하지만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편이라 열린 장터를 주관하고 있는 여학생부처(처장=임돈희·사학) 측에서는 더욱더 많은 동국인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홍진선(국교 4) 양은 "열린 장터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이 많다"며 아쉬워한다. 쓸만한 물건이 없고 상품이 자주 교체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하지만 좋은 물품들은 '단골손님'들에게 금방 판매돼 가끔 들르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 한다.

한편, 오늘(2일)부터 여학생부처는 각 과 교수들을 직접 방문해 도서 기증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을 위해 교수들에게 제자 사랑의 마음으로 도서기증을 호소해서 도서장터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다.

봄이다. 옷장과 책장을 정리하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없지는 살펴보자. 다른 사람에게 파스한 봄을 느끼게 해주는 건 어떨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휴무 여학생부처 260-3056

중구 녹색가게

중구가 더욱더 푸르려졌다. 지난달 20일 중구 녹색가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필동면옥 앞 미도파빌딩 1층에 자리잡은 녹색가게는 아바다운동에 동참하려는 '녹색손님'들로 항상 붐빈다.

녹색가게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자 마련된 상설 알뜰매장이며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에 4곳이 있다. 그중 중구 녹색가게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손님'은 가게를 찾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버리기에는 아까워 자리만 차지하던 물품들과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담아갈 가방이 그것이다. 가져온 물건을 팔아 산정된 가격의 50%만큼 물

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인 녹색가게는 한마디로 재사용 물품교환 장소인 것이다. 하루 수익금은 4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데 이 수익금은 중구를 위해 환경기금과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물품교환의 수량은 3점을 넘지 못한다. 또한 가져갈 물품이 없으면 현금구매도 가능한데 현금으로는 1점밖에 구입할 수 없다. 견물생심이라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 도리어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매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일은 필수!

녹색가게 상품들은 정말 다양하다. 의류와 가전제품, 도서류는 물론이거니와 유모차, 강아지집까지 있으며 심지어 본교의 새내기 세로

중구청 재활용센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새내기, 새로운 가전제품이 필요한 현내기 모두 모두 모여라!

처음 '중구청 재활용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초라함에 실망할 지도 모른다. 열핏 봐도 시판된지 10년이 훨씬 넘어보이는 '구닥다리' 텔레비전에서부터 그 성능마저 의심스러운 냉장고나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들 모두가 새제품 못지 않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 개장한 중구청 재활용센터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부터 책상, 의자, 침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생활필수품'이 모여 있다. 신당 6동 동사무소 앞에

위치한 중구청 재활용센터는 중구 유일의 재활용센터이며 서울 시내 25개 재활용센터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다. 그 가격대는 텔레비전은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세탁기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며, VTR과 냉장고는 6만원부터이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다른 구민들도 종종 찾는다.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중구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 신고전화로 시작되며 하루 10여건 정도가 접수된다. 재활용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재활용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 물품을 수거하거나 폐기물은 각 동 동사무소에 연락해 폐기처분할 수 있게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모두 무상으로 처리해주며 폐기를 운반비는 5천원이다.

재활용센터의 운영 책임자인 박용씨는 "중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전한다. 실제로 지난 달 사범대 학생들이 소파, 탁자 등을 구입해 갔다고.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재활용센터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 있는 곳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손해다. "아껴야 잘 살죠"라는 말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구청 재활용센터 231-7282

김미경 기자

짧은 소식

학교 안에서

손짓사랑회 공연

손짓사랑회는 수화를 배우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동아리. 손짓사랑회에서 새내기 모집을 위해 수화 공연을 한다.

오는 3일, 10일 12시
본상 앞에서

학교 밖에서

1회 네티즌 연극제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 통신 연극동호회 회원이 펼치는 연극제. 동호회원들은 그간 월 1회 정기공연, 주 1회 분과별 모임, 등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넷츠고=1~15일 전시·세미나
△천리안=3~6일 '숲속의 섬을 찾아라' △유니텔=7~8일 '사춘기' △나우누리=10~13일 '굿닥터' △하이텔=14~15일 '자유이미지'

여해문화공간에서 766-7776

해후

부부 무용가 조남규·송정은이 처음으로 무대에 만난다. 조남규 안무의 '그대발자국 하나'와 송정은의 '그대발자국 둘'은 30년대 신무용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전통춤위를 보여준다.

4일 오후 7시만
문예회관 대극장 .297-0917

새벽별-김한기전

수화 김한기가 태어난 2월 27일을 맞춰 그의 뉴욕 시절 초기작을 전시한다. 그의 별은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밝아오는 아침을 기대하는 은유적인 의미로 표현해 있다.

다음달 12일까지
환기미술관 391-7701

OCCULT 세미나

심비서적 전문 출판사이자 한국 유일의 오컬트 잡지인 오컬트 다이제스트를 발행하는 화이트 백클름 판사에서 공점의 문화와 통합이라는 주제로 오컬트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컬트란 우주의 창조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모든 변화와 그 변화 속에 내재된 힘과 작용의 총체를 말한다.

8일부터 14일까지
북제주군 청소년 수련소에서 064-83-5769 (화이트백클름 출판사)

경제한파 이겨낼 봄기운 담백

제도 정착위해 지속적 시민참여·홍보 질실

경제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아바다운동'이 벌어졌다. 경제가 이지경이 된 데에는 국민들의 과소비가 한 몫을 했다는 평가 속에서 그야말로 범국민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경제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민들의 무절제한 과소비에 있다'라는 단정은 경제파탄에 책임을 지려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책임전가를 하기

위한 과장된 비약임을 국민들도 알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남이 쓰던 물건을 다시 쓰는 것에 대해 웬지 꺼림직한 표정부터 있는 그간의 관습이 악습임을 알게되면서 국민들은 적극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구단위 운영의 재활용센터가 활기를 찾고 녹색가게라는 재활용품 교환장터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바다 단지가 동네 단위로 물품교환소를 설치한다거나 연예인을 동반한 일회용 이벤

트들이 골잡 텔레비전을 통해 공중파로 방송된 이후로는 이러한 운동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듯하다.

현재 본교 주변에도 이러한 재활용품 구입소가 세 곳이나 있다. 본교 계산관에 위치한 열린장터는 예전부터 수익금을 공공을 위해 쓰는 등 점차적인 지·간접홍보로 학생들 사이 이용이 활성화 되는 과정에 있고, 중구청에서 설립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중구청 재활용센터가 지난 5월 신당 6동 동사무소 앞에 개장돼 자취·하숙생에게 희소식을 주기도 했다. 한편 아바다 운동에 부응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한 상설 알뜰

매장 녹색가게가 지난달 20일 문을 열어 자원봉사자들의 숭선수범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운동의 관건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실제 재활용물품을 공급하고 수요하는 시민의 참여도와 문제의 구나 기관차원의 홍보·유지 노력이다. 물론 활성화된 재활용센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의지가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야 함은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느쪽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재활용센터를 찾고 그만인 사람들이 있고 순간 매스컴을 타기 위해 일을 시작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타지역 재활용센터 자원봉사

하는 한 학생은 "아직 초기단계라 하루에 오는 사람들도 적고 물품을 내놓는 사람도 한정돼 있는 물품교환장터에 하루에도 몇번씩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들이 다녀가곤 한다"며 물품교환장터들이 녹색캠페인의 시그니처를 탄 단발적 이벤트로 전락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사회의 캠페인은 이제 씨앗을 뿌리는 단계에 서있다. 씨앗 트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운동들이 시민들 사이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물을 주고 양분을 주듯 성의를 갖고 운동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최진 기자

메아리

희생

▲공천류에 속하는 사마귀는 자신들의 종족보호를 위해 알수컷이 교배한 후 수컷은 기꺼이 암컷의 먹이가 된다. 알컷은 수컷을 먹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 새끼 사마귀가 될즈음 암컷 사마귀는 스스로 새끼들의 먹이가 된다.

이는 사마귀들의 본성으로 자신의 몸통이 버려져도 안전을 지켜 먹힐지도 모르는 새끼 사마귀를 위해 제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마귀들의 법칙이고 삶의 방식이다. 왜 사마귀는 다른 곤충들과 다르게 새끼들의 먹이가 되길 자처할까. 아마도 사마귀는 자신의 정부를 새끼들의 밑거름으로 삼아 종족유지와 후대의 번창을 위해 아낌없이 준다.

▲지난 89년부터 97년까지 8년동안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합법화는 교육개혁의 시발점이기에 수많은

전교조들이 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97년 정부는 교직이라는 직책이 성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한편, 사회의 인식부족을 이유로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점차적으로 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루도록 추진해왔다. 그러한 노력들은 현재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걸림들은 없어지지 않았다.

바로 일부 사학재단의 전교조 반대서명 운동이 그 원인이다. 이들은 전교조 합법화가 반교육적이며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으로 권의주의와 절대권력을 움켜쥐고 때를 못 벗은 교육개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사마귀의 부모들처럼 희생을 무릅쓰고 밑거름이 되어 종족의 유지와 번창을 기원해 주지는 못하면서,

▲교육개혁은 올바른 사회구현을 위해서

연젠가 해야 할 과업이다. 또한 정상제도일치할 학교교육을 바로잡고 목표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교실,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이 더욱 중시되는 현 교육현실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는 교사, 그들이 단결하기 위해서는 전교조의 합법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마귀의 희생본성처럼 사학재단의 희생본성이 지금은 필요한 때이다.

조인선 사회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새내기 수칙

△대학엔 길이 있다. 제발 삼천포로 가는 길에 들어가지 마라.

△수: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칩: 칩칙하게 살지는 말 것.

△새로운 내일을 기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나는 현내이지만 나도 항상 새내기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아이가처럼만 살지 않으면 된다.

△그아이는나 △집착을 버리도록 하거라.

△한학기 동안은 도서관 출입을 금한다.

△술과 싸워라. △남자친구는 꼭 새내기때 만나야 한다. 값

떨어지기전에.(그때 산 남자들이 제일 비싸다.)

△공부를 하던지 술을 먹던지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학생회관에서 밥지어먹지 말기를. 불조심!

△화장실갈 때 휴지는 필수. 화장실에 휴지는 거의 없음.

△되는 대로 살아 볼 것. 그래도 남는 것은 없다. 이렇게 살면 안된다는 것.

△새: 룬고 내: 면에 치중하며 기: 도 퍼고 수: 수하게 칩? 생각이 안나는데? 아마도 새내기는 알려야~

△내내술떨면 안돼요~ △1년동안 선배수칙을 만들어 보자. 선배를 무시하지?

△난 이런 사람이 좋더라보다 스스로가 어떤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필름 끊어질 때까지 술을 마셔본다. 내가 나비인지 너비가 나비인지 모를 것이다.

△밥은 꼭 선배돈으로 먹어라. 그래야 후배를 걸어 먹을 수 있다. 저축한 돈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선배는 하늘이요. 후배는 땅이될 수도 비행기가 될 수도 우주선이 될 수도 있다. 자기하기에 따라서.

△까라면 깬다. -94 능금-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정말 시작이다. 아호!



오늘의 글

임채연 (공과대 전기전자공학부 1)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

그가 '전기전자공학부의 새로운 명물'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가 시작되기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마냥 즐거워한 공과대 전기전자공학부 새내기 임채연군은 선배와 함께 인터뷰 장소로 나왔다. 선배는 돌아가며 기자에게 신신당부했다. "우리 국진이, 이따가 인터뷰 끝나고 꼭 3층으로 올려보내주세요. 어

디로 필지 모르거든요"

국진이요? 수감신창하는 날 선배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술에 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술에 취하면 귀가 잘 안들리거든요. 그래서 막 헛소리를 했나봐요. 그 모습이 개그맨 김국진이랑 비슷해서 선배들이 그때부터 제 이름을 안 부르고 김국진이라고 불러요.

새터 둘째날 전기전자공학부 각 조장기자랑에서 저희 조는 펍시맨 광고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펍시맨을 했는데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삼각팬티만 입고 나가니까 엄청 웃더라구요. 내일 공과대·정산대 새내기 장기자랑에 전기전자공학부 대표로 나가요. 일 등하면 좋은 상품을 준다면데, 꼭 일 등해서 과제 기증하고 싶어요. 새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



있어요. 특히 선배들이랑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좋았는데,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배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선배들이 학교 생활에 도움 되는 많은 말을 들려주셨거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랑 사귀고 싶어요. 고 3 때 담임선생님이 '쌍권총 처럼 대학생들 좀 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쌍권총' 처는 대학생은 정말 되고 싶지 않아요. 놀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

하는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 IMF시대잖아요? 공부 열심히해서 장학금도 받고 싶어요. 대학생들, 앞으로 정말 재미있었죠? 인터뷰 내내 그 선한 웃음을 참지 못했던 임채연군. 누군가 말한 것처럼 '커다란 기쁨에 나서듯 같은 존재'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미경 기자

참사람 봉사단 참여로 작은 나눔 큰 보람 느껴

나의 능력에 대한 불만이 항상 많았었다. 남과 비교해 항상 작게만 느껴지는 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참사람 봉사단 모집공고를 읽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일중에서 나는 정말 보람있으면서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래서 하게 된 일이 문헌복지관에 있는 아이들의 방과후 공부방 지도였다.

일주일에 3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규칙적으로 9명의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물론 많이 어색하고 실수도 했다. 내가 너무 미숙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의 친근한 미소와 내가 봉사하러 오는 몇 시간이 그곳의 선생님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봉사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요일에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날이 기다려진다.

나는 봉사라는 이름을 은연중에 새기고 있었는데 다른 봉사자들이 몇 년째 묵묵히 음양으로 돕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숙연해졌다. 참다운 봉사란 그자체가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남을 돕는 것은 능력이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아 보이고,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져 움츠러

들때는 오히려 나보다 어려운 주위의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권하고 싶다. '나의 작은 힘'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봉사를 통해 알게 된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배움은 내가 살아갈 때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나는 항상 '보람이 될 수 있는 작은 힘'을 믿고 실천 하면서 또 자랑스러워 하며 살 것이다.

현인아 (문과대 사학과)

학생편의 시설에 세심한 배려를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이제 학교는 개강을 하게 되었다. 대학이라는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을 때의 설레임과 혼란스러움을 되새기며 후배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를 되짚어 보게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한번도 가져보지 않은 선배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입생을 맞이하는 학교 당국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대학에 입학한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내 학생편의 시설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학생입

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얼마전, 생자대 학생들은 자치공간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학생회의 자치공간 문제는 학부제가 실시된 지난 96년부터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으나 학교 당국이 효율적으로 해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마련되어야 할 학생회의 자치공간 하나 확보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밖에 사소한 일들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공과대 학생회관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매체센터 공사는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난 소음과 함께 그곳을 통과하는 학우들에게 수많은 불편을 주었다. 널려진 공사비들과 파헤쳐진 인도를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가는 학우들이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다. 또한 도서관 1열람실이 위치해 있던 장소에 멀티미디어실 공사를 해 방학 내내 폐쇄되어 있었다. 게다가 특별한 대체공간이 없어 그 곳에서 공부해 오던 학생들은 공부할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도 변함없이 등록금을 납부하면서 모든 학우들은 '과연 이 학비가 알차게 쓰여질 것인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동학의 학우들은 학교당국의 세

심한 배려를 바라고 있다. 학교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학생임을 학교급국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정명선(경상대 회계학부)

엄숙한 자각으로 대학시절 준비해야

새내기들이여!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이제 신라천년의 미소가 살아있는 경주에서 1백년의 전통을 지닌 종합학교, 민족의 얼이 숨쉬는 대학, 동국대학교에서 젊음의 기개를 펼치기 위해 찾아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이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생활을 혼돈과 방황으로 끝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 시기가 자신의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나아가 세계관을 성립시켜야하는 중대한 시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유와 방종을 이상과 현실을 이기심과 협동(보시)심, 포용력과 배타성, 사랑과 미움, 좋고 싫음, 선과 악을 생각하고 너와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캠퍼스 생활이 되어야 할

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가치관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의식의 고양을 통하여 권위에 반항하여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기도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전환이 이뤄지는 시기가 바로 대학시절인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기에 편협된 시각과 젊음의 정열이 합쳐질 때 일체의 다른 관점을 배격하는 흑백논리로 무장하게 됨으로써 극단적인 편견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IMF시대에 아버지의 월급부라도 알파라 하고 어머니의 가계부도 무거워진 요즘, 새내기도 음주, 가루에 탐닉하는 용돈을 즐기고 자기 삶의 삶을 찌우는데 투자합니다. 이 3월에는 동문회 모임, 동아리 파티, 학과 MT나 워니 해서 쉴 틈없어 몰려다니며 같이하는 술자리를 아나바다운동으로 바꿔봅시다.

황래열(경주대 학생회장)

알림

이번 호부터 만화 필자가 신유현(미술3)양에서 김경일(미술3)군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Table with columns for '월' (Month), '화' (Day), '수' (Day), '목' (Day), '금' (Day), '토' (Day) and corresponding menu items and prices for various student and staff canteens.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columns for '월' (Month), '화' (Day), '수' (Day), '목' (Day), '금' (Day) and corresponding menu items and prices for Dongguk University staff and student canteens.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민중사랑 94종근당의 제대를 축하합니다. -종근당 중앙위- △어린이왕자님의 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리달개를 기다리는 장미가- △최동현 화형(제 12대 동연회장)의 출소를 환영하며, 앞날의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중사랑 후배 티- △0226, 그날은 그녀의 탄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몰랐다. 기영형 님이지만 생일을 축하하려고요. 많이 서운하셨죠? -생일 인형겨준다고 칭얼했던 후배가-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수고하신 야·총 자부단원들 율한해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며... 행복하세요. -야·총 자부 단장- △명진아 현정아 새·터준비하느라 수고했다.

열심히 합니다

△생명자원경제학과 96·97·98 학우 여러분 과의 부흥을 위해 다시 한번 뛰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몸쳐서 잘 해 봅시다. -생자경 발전 위원회(중)-

알립니다

△영화공동체 디딤돌, 98새내기 모집합니다. -학생회관 3층, 디딤돌- △동국대 불교학생회 뜻있고 패기 넘치는 멋진 98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학생회관 3층, 불교학생회- △하늘과 함께하는 바람소리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98신입생 모집 -학생회관 옥내 지하 1층 바람소리-

그리고...

△경환아 휴가나와서 반가웠다. 나중에 또 다시보자. -황소- △이곳도 아닙니다. 저곳도 아닙니다. 참된 대학생들의 길잡이, 유스호스텔에 있습니다. △국교과 새·터 7명의 전사들 1년동안 잘 지내고 98모두 사랑한다. -97 영평아-

수고하셨습니다

△동국한의 의료봉사단 청심회여러분 투쟁의료봉사 기간 동안 정말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 하계의로 봉사때 다시 힘을 모아 만납시다. -단장- △호우회!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회지 만드느라 고생많이 했다. -현황-

열심히 합니다

△법정학부 B·S·C화이팅! -평인 K·S- △역사철학부 2반 고미사 중 놀라미사 잘살아보자! -MF- △이제 4학년을 맞이하는 법학과 여학우들에게, 새학기도 화끈하게(?) 잘 보내자. -원- △신정아, 웅진아, 지희아! 1학년처럼 놀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거라. -멋쟁이- △성근아 솔메리아 들어간거 축하하고 △성근아 해서 나에게 노래 들려줘. -터프기이-

알립니다

△음악에 관심있는 새내기는 솔메리아로 오세요. 운동장 스탠드 뒤에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노노메기는 축구 동아리입니다. 스탠드밑에 있는 동아리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성민이형이 도서관에서 자주 보는데 공부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아일 비 백!' 관경과 원상이 돌아왔다! 다들 긴장해! -92원샷-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못해 선자, 미정아 그리고 과 친구들에게 미안해. 98년도는 모두 힘차게 I m A+를 외치길 바래. -경삼D 못나이- △은주야 미련아 방학 잘 지냈어? 개강하구 보자. 심심해서 학교 다녀간다. -나아- △국문과 이필규, 정성원, 김성목, 김태성, 이태성이 돌아오다. -Come back univ. △우리 재환이 복학했어요. 한해동안 공부 열심히 하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상준, 장안, 정윤아 군대간거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상희야 너의 남자친구 간수 잘해라 잘있길 바란다.